

# 아팔레치아 산길을 여행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팔레치아 산길은 2100 마일로 메인주부터 조지아까지 연결되어 긴 산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아직 도전해 보지 못하신 분, 혹은 어딘지 모르시는 분! 당신은 중요한 곳을  
빠트린 것입니다.

멀지 않아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그곳

서로에게 Ministries 가 함께 나누고자 베어 마운틴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아시나요? 베어 마운틴 역시 아팔레치아 산길의 일부 인 것일? ( 등반은  
산길 전체 2100 마일이 아닌 일부만 오릅니다.)

서로에게 Ministries 는 일반적으로 18 세부터 35 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지역에  
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이벤트를 마련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바쁜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화면으로 만나는 이롭이 아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당신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지난 겨울에 쌓여있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으신 분, 아직 진짜 여름을 느끼지 못하신 분!  
베어 마운틴 산행만큼 일석이조의 이벤트는 없습니다. 유쾌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몸이 건강해  
지는 산행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겠죠?



혼자만 알기에 너무 아깝죠?  
함께이기에 좋은 친구와 함께오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서로에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산행에 김밥이 빠질순 없겠죠? 가입신청이 진행 되는 데로 점심 식사로 무료 김밥이  
제공 됩니다. 물론, 차량도 제공 되어니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서로에게는 웹사이트  
그리고 페이스 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질문사항 및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웹 사이트 : <http://www.to1another.com>



소지품 (선택사항) - 등산화나 운동화,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이나 옷 (벌레에 물릴 수 있으니, 소매가 있는 얇은 바지와 티셔츠를  
권장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추억을 남길 수 있겠죠?)